불자 세상보기

선거혁명으로 국회 정체성 회복하자

정천구
서울디지털대
석좌교수

4.13 총선은 국회의원다운 후보자를 뽑아 20대 국회를 제대로 된 국회로 만들 좋은 기회이다.

국회는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헌법과 양심에 따라 국정의 근간이 되는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 운영을 감시견제하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국회는 그런 국회상과는 거리가 멀다. 허구한 날 정치투쟁으로 세월을 보내고 공익보다는 정파적 이해를 앞세워 국정의 발목을 잡는 집단으로 비쳐지고 있다.

국회의 정체성 회복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것은 최악의 국회라는 19대 국회에 대한 실망에서 비롯되었다. 의원까리 몸싸움만 일삼는 '동물국회'를 개혁하기 위해 18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이란 것을 만들었다. 그런데 19대 국회는 이를 악용하여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어떤 법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식물국회, 국정의 발목을 잡는 집단으로 변한 것이다. 그런 틈새에서 여야는 국가적인 과제는 외면하고 정치적 이익을 주고받을 수 있는 법안만을 통과시켰다. 이런 국회를 가지고는 붓다가 이미 2500전 설파했던 자유, 평등, 우애의 민주주의 이상(理想)을 추구하기 어렵다.

20대 국회부터는 국회의원답지 않은 후보자는 절대 뽑지 말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광범하게 형성된 것은 그 때문이다.

여야가 20대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기준을 정체성 확립으로 내세운 것도 이런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이었다.

여당은 대통령을 당선시켜 정부운영의 책임을 맡은 새누리당의 정체성에 걸맞지 않는 인물을 공천에서 탈락시킨다고 했다. 더민주당은 친노패권을 청산하고 운동권체질을 바꾸어 제대로 된 의회주의 야당을 만드는 것을 공천의 목표로 삼았다.

새누리당의 공천은 친박 · 비박간의 권력다툼으로 비쳐져 역풍을 맞았고 더민주당의 공천은 비례대표공천의 파행이 있었지만 양당의 정체성 공천은 절반은 성공한 셈이다. 양당 구조의 병폐를 파고든 국민의 당도 제3당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다.

이번 선거에는 253명을 뽑는 지역구에서 944명의 후보자가 나왔다. 그런데 그 중에서 40.57%에 달하는 383명이 전과기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악의 국회라는 19대 총선의 전과자 비율(20%) 보다 두 배나 늘어난 숫자이다.

이들 중에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에게는 걸맞지 않는 국가보안법 위반, 절도, 폭행, 뇌물, 음란물 유포 등의 범죄 경력자들이 있다. 또한 후보자 중에는 공천에서 걸러지지 않은 운동권 세력들도 포함되었다.

후보자 중에는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를 이유로 대통령 탄핵을 내거는 이적성 발언을 하는가 하면 자신이 총으로 현직 대통령을 저격하는 삽화를 SNS에 올린 후보자도 있다. 이들이 들어오면 신성한 국회를 다시 난장판으로 만들지 않겠는가? 어느 당을 지지하건 유권자는 이들의 국회 진입을 결단코 저지해야 한다고 본다.

후보자의 정체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소속 정당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47석의 비례대표 의원은 각 정당이 제시한 비례대표 명단에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선출된다. 정당의 성격은 과거의 행적과 현재 각 당의 선거 슬로건에서 나타난다.

새누리당은 "뛰어라 국회야 잠자는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로", 더민주는 "문제는 경제다. 정답은 투표다", 그리고 국민의 당은 "문제는 정치다. 이제는 3번이다"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새누리당은 '식물국회'를 만든 주범으로 야당을 지목하는 것이고, 더민주는 정부 · 여당의 경제정책 실패를, 그리고 국민의 당은 '후진적 양당 정치'를 쟁점으로 부각시키려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발사로 유엔의 강도 높은 대북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엄중한 안보위기 속에서도 3당 모두 안보문제를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고 있다.

정치와 경제는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국가공동체에게 더욱 중요한 가치는 안전보장과 자유이다. 그것들 없이 우리는 다른 가치들을 향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국가안보를 중요한 선택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관점이다.

기자 칼럼

박제된 기억, 출가 그리고 대중

신성민
취재부 차장

먼저 잡설 한 마디. 배우 차태현과 전지현을 스타덤에 오르게 한 영화 '엽기적인 그녀'를 기억하는가. 2001년 개봉한 이 영화는 전국 488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2000년대 한국영화 붐을 이끌었다.

복고 열풍이 불어서일까. '엽기적인 그녀' 2편이 오는 5월 개봉한다. 햇수로만 보면 15년만에 속편이 나온 것이다. 주인공 견우 차태현은 그대로 나오지만, 엽기적인 그녀 전지현은 출연하지 않는다. 영화사가 공개한 예고편을 보면 알 수 있다. 공개된 영상은 견우의 내레이션으로 시작한다.

"그녀와 저의 만남을 아직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라졌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내레이션 뒤로 견우에게 등을 보이며 스쳐지나가는 뒷모습이 클로즈업되면서 비구니 한 명이 등장하고 이내 종종 걸음으로 비구니 스님들과 사찰로 자리를 옮긴다. 이번 '엽기적인 그녀 2'의 스토리는 전지현이 비구니가 돼서 돌연 차태현과 결별했는데 대륙의 딸인 빅토리아가 찾아와 결혼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웃고 넘길 수도 있는 소재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했다. 21세기 현대에 와서도 '출가'를 '피치 못할 사연으로 속세를 떠나는 것'처럼 소비하고 있어서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장 법응 스님이 4월 8일 출가포럼에서 발표한 발제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

"출가는 행동이고 대체적으로 깊은 사고(思考)를 바탕으로 하기에 '발심출가'라 한다. 출가는 삭발염의와 계율을 지킬 것을 약속하고 승가의 일원이 되며, '상구보리하화중생'이라는 삶으로 대변된다. 출가는 이기심과 고통이 발현될 수밖에 없는 속세의 굴레를 끊고 무한 확장과 대자유의 삶을 통해 세속의 인연들을 '심출가'시키는 일을 하기에 의미 있는 삶이 분명하다."

현재 한국불교는 제도, 수행환경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현대화됐다. 하지만 출가와 승가에 대한 대중의 시선은 19~20세기의 '박제된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불교는 오래되고 어렵고 힘들 것'이라는 '박제된 기억'을 영화라는 대중문화 영역에서도 소비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 같은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 누군가는 어린이 · 청소년 포교의 추락으로 인한 계층 포교를 원인으로 꼽을 것이고, 아니면 그간 미진했던 사회참여에 대한 것 때문이라고도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응 스님이 던진 질문 안에 있다. "아날로그 중의 아날로그,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종교인 불교는 이렇게 복잡다단한 사회현상과 다양한 문화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다른 종교와 공존하며 때로 경쟁하면서 흔들림 없는 정체성을 확립하고 인류의 미래를 밝히는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결국, 불교가 최종적으로 맞닥뜨려야 할 것은 일반 대중이다. 부처님 법을 전하는 전법 · 포교도 출가도 대중에게 기인한다.

조계종 교육원은 올해를 '출가 진흥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던지고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도 지난 1월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문직 은퇴자들의 특수출가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문직 은퇴자와 미래세대의 출가를 동시에 독려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은퇴 출가와 출가 홍보는 단기적인 방편이다. 어디까지 미래세대들이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계층 포교가 되살아나야 한다. 또한 불교와 스님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돌려놓을 필요도 있다. 지금까지 전무한 출가 전담 부서 역시 개설돼야 한다. 제도 마련도 중요하다. 그만큼 투자도 함께 선행돼야 한다. 투자가 없는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社說

태고종 장기 내홍 조속히 수습돼야

한국불교태고종은 지난 15개월동안 지속된 내홍으로 종도들간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그동안 갈등의 실마리가 풀릴듯 하다가도 집행부와 비대위간의 견해차로 해결이 쉽지 않았다. 급기야 폭력으로 얼룩져 총무원장 구속이라는 종단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치달았다.

이렇게 극한까지 치달았던 태고종 분규가 수습 국면에 들어갔다는 반가운 소리가 들린다.

현재 구속 상태인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스님과 비상대책위원장 종연스님은 4월 1일 각각 대리인을 통해 '종단화합과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한 합의에 뜻을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합의 내용을 보면 '종단화합과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으며, 특위 위원은 공동위원장이 협의해 동수로 하겠다고 한다. 이 위원들은 앞으로 종단 사태에 관한 수습안과 발전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방안으로는 종법 개정과 종단 직제개편, 종단재정안정화 방안 마련 등이 명시됐다. 또한 폭력사태와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을 일체 묻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태고종은 종도는 물론 불자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 불자로서 어떤 변명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을 일들을 해왔다.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에게 내홍의 책임을 돌리는 등 부처님의 대표적인 가르침인 상생과 자비 정신은 찾아볼 수 없었다.

뒤늦었지만 이제 화합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앞으로 초발심으로 돌아가 그동안 상처받은 종도들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길 바란다. 그것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봉축을 맞이하는 불자의 참된 도리일 것이다.

허울뿐인 신도교무금 대책 필요하다

조계종이 4월 1일 종단 홈페이지에 2015년도 예산 4등급(30억원) 이상 직영사찰 재정을 공개했다. 해당 사찰은 봉은사 · 조계사 · 선본사 · 보문사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네 사찰 모두 총수입예산 대비 결산액이 100%를 넘었다. 하지만 신도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신도교무금 납부율은 천차만별이다. 보문사는 교무금이 가장 적게 납부됐지만, 봉은사와 조계사는 각각 98%(3050만원), 79%(5500만원)를 기록했다.

신도교무금 납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조계종 포교원의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다. 조계종 포교원에 따르면 신도교무금 재납부율은 2012년 34%, 2013년 29%, 2014년 26.6%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교무금 재납부율은 24%에 그쳤다.

2009년 조계종 멤버십신도증 도입 이후 재발급과 신규로 신도 등록한 불자는 약 28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이 중 20만 명 이상이 교무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말이 된다. 사실상 조직적 신도관리가 이뤄지지 않다는 것이다.

신도교무금 납부가 미진한 이유는 사찰과 신도 모두 무관심하고, 납부를 독려하고 이를 듣고 납부할 의지가 없으며, 납부를 하지 않아도 종단과 사찰,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3無'가 가속화되고 있어서다.

신도증을 만들고 품계제도를 도입한 것은 모두 제적사찰을 갖고 정기적인 신행생활을 하며, 이를 통해 조직화, 교육화 된 신도를 만들겠다는 정책적 목표가 있어서였다. 연 1만원의 신도교무금은 종단과 제적 사찰에 대한 신도들의 관심과 소속감의 척도다.

현재 조계종의 신도교무금 제도는 허울만 존재하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때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우)031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2층(수송동)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www.hyunbulshop.com

희담석 지킴이 염주세트 직경 8㎜
· 구 성 : 108염주 + 희담석지킴이
· 판매가 : 28,800원

희담석 108 염주세트 직경 12㎜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40,800원

희담석 108 염주세트 직경 10㎜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30,800원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는?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 (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가격 비 취 목 걸 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 – 상(연옥) 가액 ₩80,000원